# 지부교섭 속보

제08호 / '15.7.13(월)

기본급 159,900원 인상!
유급 대체휴무 쟁취!
실질적 위험성평가 시행!

■발행처:선전부 ■발행인:조민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 7월 중순인데 아직도 임금안이 없다!

## 사측 10차 교섭까지 임금제시안 한 번도 제출 안해

### 10차 교섭인데 아직도 갈길이 멀다

7월 9일(목) 14시 한라비스테온공조에서 10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지부교섭이 4월 9일 시작해서 벌써 10차를 맞았다.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휴가 전 타결하자는 지부의 의지를 수없이 밝혔지만 사용자측은 여전히 제대로 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용자들이 지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건지 성의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심지어 **임금안은 단 한번도 언급도 안됐다.** 이미 노동위원회의 조정까지 거쳤고 조정중지가 떨어진 상황이다. 교섭도 10차례나 진행했다. 지부는 휴가 전 타결하겠다고 수차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사측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 검토할만한 임금안 내놓아야

올해 지부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려면 사측의 임금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 이미 시기가 많이 늦었다. 그만큼 **차기 교섭에서는 의견접근을 고민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전향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 지부는 차기 교섭에서는 반드시 전향적인 임금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차기교섭에서 검토할만한 사측의 임금안이 나온다면 지회별 실무교섭을 열어 논의할 수 있다. 지부교섭 자리에서 곧바로 지회별 논의도 가능하다. 사측이 성의있는 임금안만 제시한다면 교섭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올해 교섭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전적으로 사측의 태도에 달려있다.

유급휴일 대체휴무에 대한 요구안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측은 여전히 **어린이날은 아예 빼놓은채 논의를 하고 있다. 설, 추석만 일요일과 중복시 대체휴무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지부가 요구한 것은 설, 추석, 어린이날이 휴일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무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재충전 시간을 보장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여전히 휴일이 늘어나면 특근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며 비용부담만 생각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공동으로 실시하자는 것이 요구안의 핵심 내용이다. 지부는 노사 공동 실시만 가능하면 별도 기구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다고 양보까지 했다. 그러나 사측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일부 참여시키겠다는 내용만 제시하고 있다.

### 진정성있게 교섭에 나오길

지부는 교섭에서 이미 수차례 의지를 밝혔다. 휴가 전 타결할 수 있도록 사측의 전향적인 안을 요구했다. 그래도 사측이 지금까지와 비슷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결국 우리는 투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 15일 지부교섭 사업장을 비롯해 투쟁사업장들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15일 파업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자. 16일 교섭에 나올 사측 교섭위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게 만들자!

10차 교섭 속기록

# 다음교섭 땐 임금 제시안 반드시 내라

**<본조정회의를 9차 교섭으로 인정하고 이번 교섭은 10차 교섭으로 진행하기로 양측 합의>**

**노 :** 중앙교섭은 사용자단체가 안을 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안이었다. 다음 주부터는 축조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부교섭도 속도가 나지 않을까 한다. 일찍이 말씀드렸지만 8기 지도부 임기를 특별하게 연장하지 않는 이상 교섭을 8월까지 끌고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론 단위사업장 사정에 따라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조건이다. 언제든지 조기에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제시안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 금속노조 중집 결정으로 대각선교섭과 지회 보충교섭에서 임금을 다루도록 열어두었다. 지부교섭 공식석상에서 의견접근할 수 있을만한 안을 논의해달라. 사용자도 그 점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

**사 :** 한라비스테온공조 회사 체계가 바뀌면서 새로 자리를 맡았다. 각 부문별 대표가 있는 개념으로 대표이사라는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노 :** 대표해서 교섭체결 권한을 갖고 오신 건 맞나? (**사 :** 맞다) 오늘 안 준비된 것 있나?

**사 :** 최근 가뭄으로 많이 고생했고 메르스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오늘 비가 조금씩 내리고 가뭄에 해갈이 될 것 같다. 저희도 이번주 단비처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제시안 가져왔다. 안을 낼 때마다 각 사별로 의견을 조율하기 어렵다. 위험성 평가는 중앙이랑 동일한 내용이다. 유급휴일 요구안도 중앙처럼 실무교섭단을 꾸려주면 의견을 좀 더 나눠보겠다. 유급휴일을 비교해보니 6개사가 다 다르다. 단협을 놓고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지, 전혀 쉴 수 없는 환경의 회사는 다른 회사에 맞춰서 상향조정되면 경영부담이 크다. 그런 걸 고려해서 안을 제출했다.

**노 :** 제시안 내용 설명해달라.

**사 :** 임금인상은 각 사별 추후 제시하겠다.
유급휴일은 지부에선 어린이날까지 포함해서 요구하셨는데, 설이나 추석도 중복휴일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그 부분은 수용하기로 했다. 단, 연간근로일수가 감소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고 명절을 원활히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위험성 평가도 중앙에서 나온 내용을 담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명 이내의 근로자위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건 지회별로 논의했으면 한다.

**<정회>**

**노 :** 유급휴일이 요구와 너무 거리가 멀다. 위험성 평가도 노사가 공동으로 한다는 의미를 잘 살리면 중앙교섭 끝나고 바로 합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중집에서 임금교섭을 지회로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임금 제시안이 한번도 안나온 상태에서 지회별로 내리는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보다 진전된 내용이 차기 교섭에서 나왔으면 한다. 무엇보다 임금안이 나와야 지부교섭도 타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차기교섭에서는 임금안을 우리가 고민할만한 내용으로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사회 :** 차기 교섭 장소는 실무에서 결정하겠다.